천주교의정부주보
DIOCESE OF UIJEONGBU

2022년 1월 23일
다해 · 제947호

• **발행인** 이기헌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입당송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느헤 8,2-4ㄱ.5-6.8-10

화답송 시편 19(18),8.9.10.15(◉ 요한 6,63ㄷ 참조)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2독서 1코린 12,12-30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1,1-4; 4,14-21

영성체송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순교 사적지

손골 성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437번길 67

관할
수원교구 / 손골 성지 031-263-1242

손골 성지는 광교산에 자리한 교우촌이었다. 박해시대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우들이 기해박해(1839)를 전후해서 서울 인근으로 이동해 와 교우촌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손골 교우촌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선교 준비를 하고 휴식과 피정을 했던 곳이다. 손골에서는 특별히 성 도리 신부와 성 오매트르 신부를 기념한다. 도리 신부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대부분을 손골에서 지내다 이곳에서 체포되었고,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오매트르 신부는 손골을 포함한 경기 남부(현재 수원교구) 지역에서 사목하다가 체포되어 갈매못에서 순교하였다.

1966년 성 도리 신부님 순교 100주년을 맞아 성인 고향의 본당 주임신부는 그 부모가 쓰던 맷돌로 돌 십자가 두 개를 만들어 하나를 손골로 보내왔는데, 이를 계기로 성지에 '성 도리 헨리코 김 신부 순교비'가 세워졌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며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

예수님의 출사표

김오석 라이문도 신부
목동동 주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셨고, 당신의 두 발을 땅 위에 딛고 걸어 다니셨으며, 몸에 상처가 나면 뜨거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병자와 죄인, 감옥에 갇힌 이와 세리, 창녀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가난한 삶을 몸소 사시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와 똑같은 살과 심장, 마음과 영혼을 지닌 인간이셨습니다. 백성들을 핍박하던 지배자들을 향해 "아니오!"라고 외침으로써 십자가형을 받아 고통받고 피 흘리며 생명을 내놓은 투신의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서 사셨던 구체적인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며, 이러한 삶을 통해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역사의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의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약하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 신앙에 회의를 느끼신다면 역사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으려 노력하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묶인 사람, 눈먼 사람,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던 그분처럼 따스한 마음과 손길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던 인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소명의 말씀이요, 공생활 첫 출발선에서 세상을 향해 내던지신 출사표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는 일"(루카 4,18)은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역시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는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그들의 자유와 치유와 해방을 위하여 생명을 나누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예수님의 출사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출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14

우리가 경험하는 시노달리타스 (7)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다양한 약자,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상태에 주목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예비문서 29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단지 출생지나 거주지 때문에 발전되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기회가 누군가에게 더 적게 주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모든 형제들」 121항)며 '이주민과 난민들의 국경 없는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교구는 오래전부터 이주민들과 함께해왔고, 최근에는 난민들과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동두천 가톨릭센터"입니다. 이 센터에선 이주민과 난민 가정에 가장 큰 문제인 '자녀들의 돌봄'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특히 난민들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고, 부모가 있어도 대부분 맞벌이라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안 됩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부모가 한국말을 잘 몰라 가정에서 언어를 익히기 어렵고, 학교에 가도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합니다.

동두천 가톨릭센터는 아이들을 방과 후부터 돌보기 시작해 저녁밥까지 먹이고 귀가시킵니다.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학습 부진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교사들이 개별수업으로 돕거나 학원비를 지원해줍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학기 중에는 저녁 식사를, 방학 중에는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말이 서툰 부모를 대신해 센터가 학교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부모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치료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많은 신자의 정성스러운 후원, 센터장 신부님과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두천 가톨릭센터장 이석재 바오로 신부님은 "이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며 모두의 관심 어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교구 시노달리타스 팀

세계주교시노드 본당 경청 과정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의정부교구 형제자매님들에게,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긴장이 누그러지지 않는 이때, 주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답답하기도 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걱정이 더해지는 요즘입니다. 부디 더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이런 혼란 속에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가 개막되었습니다. 거창하게 들리는 이름 때문에 자칫 나와는 관계없는 행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노드는 우리 각자를 포함하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 모두가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시노드에서 '최대한 많은 이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목적은 신학 전문가들이 모여 정형화된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세대, 언어와 문화에 속한 가톨릭 신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고, 함께 걸어가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구는 시노달리타스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신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방안을 준비하였고, 이제 그것을 실행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2주에 걸쳐 각 본당의 대표 봉사자들을 위한 연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본당 사제와 수도자가 협력하여 "본당 시노달리타스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당 상황에 맞는 경청모임을 준비하고 향후 일정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번 시노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한국교회나 아시아 대륙, 또는 세계 교회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모여지는 교구 단계, 그중에서도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청모임입니다. 사제와 수도자, 본당 신자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서로에게,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본당에서 이런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시노드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움츠러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때,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함께 뜻을 모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본당 공동체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걷는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함께 걷는 백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본당에서는 이웃과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는 다수의 소모임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경청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갑시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님들의 목소리는 본당 공동체는 물론, 의정부교구와 한국교회,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위한 성령의 뜻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노드의 본당 경청 과정을 시작하면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구 경청모임”이 마무리되는 5월 29일(주일)까지 모든 미사 전후에 이 기도를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민 전체가 봉헌하는 이 기도는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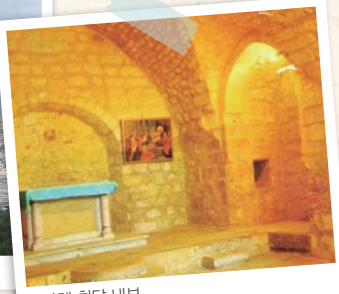
의정부교구 형제자매님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언제나 행복과 희망을 간직하시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2022년 1월 23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에

+ 이기헌

나자렛 회당

나자렛 전경


나자렛 회당 내부

회당은 유다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토라 공부뿐 아니라 재판 같은 여러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자렛이니, 어린 시절 그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던 곳은 당연히 나자렛 회당일 겁니다. 성인이 되신 뒤에는 이 회당에서 "은혜로운 해"(루카 4,19)를 선언하시지요. 지난 2000년 대희년과 2016년 자비의 희년이 바로 이 선언에서 기인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나자렛 회당은 십자군 시대에 재건한 것인데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은혜로운 해의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은혜로운 해"는 레위 25장의 희년 율법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뒤 맞는 대안식년으로서 해방의 해입니다(레위 25,10). 본디 사십구 년째이지만(8-9절) 안식년 주기를 마감한다는 상징성을 위하여 오십 년째로 규정한 듯합니다. 이때가 되면 가난 탓에 가산을 팔고 자기 자신까지도 판 백성이 자유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백성 전체를 보호하려던 조치인데요, 이를 위해 속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속량이란, 백성이 땅이나 자기 자신을 팔더라도 언제든 되살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합니다. 본인에게 능력이 없으면 형제나 친족이 대신 대가를 치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친족도 능력이 없으면 하느님께서 희년에 친족처럼 행세하여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본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23절). 게다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궁핍해진 형제를 가혹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이스라엘은 임금에게 만 탈렌트를 빚진 자와 같고, 그들 가운데 가난해진 형제는 동료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마태 18,23-35).

하지만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식년도 안 지켜졌으니(2역대 36,21) 대안식년인 희년이 지켜졌을 리 만무하지요. 하지만 예언자들은 희년을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신호탄으로 예고하는데요, 이사 61,1-2이 대표적 예입니다.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봉독하신 뒤 그 자리에서 실현되었다고 선언하신 예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희년의 의미를 고려해보면 예수님의 선언은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고 과한 재산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나치게 부유해지지 않고 절망적으로 가난의 굴레에 빠지지도 않는 세상, 하느님 나라가 그와 같을 겁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마태 6,19-21의 가르침도 희년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자렛 회당에 가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마태 22,21)는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본인의 소유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때, 기꺼이 자기 재물을 나눠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숙 소피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구약학과에서 공부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며, 수도자 신학원 등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에제키엘서〉와 〈예레미야서 1-25장〉, 〈예레미야서 26-52장〉이 있다.

한스 짐머의 영화음악 (3): 〈인터스텔라〉

음악 이야기
최대환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생활지도

21세기 들어 한스 짐머와 공동 작업을 한 영화감독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은 역시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앞서 놀란의 대표작인 <다크 나이트> 연작이 비평적,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데 짐머의 음악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놀란과 짐머가 함께 완성한 역작이 영화 <인터스텔라>(2014)입니다.

이 작품은 높은 수준의 과학지식을 배경으로 한 SF 영화의 걸작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신비한 방식으로 물리적, 시간적 차원에 의해 심오하게 규정되고 있는지, 존재의 신비에 대하여 과학이 얼마나 놀라운 인식의 성취를 이뤘는지, 그럼에도 우주는 여전히 광대하고 그 신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는 사실을 흥미롭고 진지하게 전해줍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주의 신비와 과학자들에게 관심이 생기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제작과정에 자문을 했고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킵 손이 영화에 나오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쓴 『인터스텔라의 과학』(까치, 2015)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유를 일깨우는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래 기억되는 어구는, 주인공이 인류의 절박한 위기에 대해 들었을 때 흘리듯 말하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라는 대사입니다. 이 말은 인류의 미래가 과학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놀란의 작품 중 가장 정서적이고 감동적이며, 무엇보다 사랑을,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영화가 깊은 정서적 울림을 주는 데는 경탄할 만한 영상과 함께 짐머의 음악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영화음악이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이자 자랑스러운 결실이었다고 말합니다.

<인터스텔라>의 음악을 연출할 때는 제 뜻을 마음껏 펼치다 보니, 연속으로 작업하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만들고 시험해보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 <인터스텔라>의 음악은 몇 달을 런던에 있는 제 아파트에 틀어박혀 작업했습니다.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우주선에 갇힌 듯, 이 세상에 오직 저만 남은 듯한 기분으로 곡을 썼습니다. (...)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영화는 <인터스텔라>가 처음이었습니다. 작곡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 매주 금요일에, 한 주간 작업한 곡을 영상과 함께 검토한 뒤 수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곡을 썼습니다. 그러다 음악 작업을 마무리하기 일주일 전쯤 놀런 감독이 그러더군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더 있나요?" 그때 저는 제 작곡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뇨,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살펴볼 곳은 없습니다." 생전 처음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맷 슈레이더, 『스코어 오리지널 인터뷰집』, 컴인, 2018)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길'을 발견할 용기가 필요한 시기에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리란 믿음을 <인터스텔라>의 음악을 들으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YOUTUBE로 보기

영화 〈인터스텔라〉 메인 테마
'Extra Extended' / 작곡: 한스 짐머

교구장 동 정

1월	23(주일)	16시	어린이부,청소년부 주일학교 교감단 연수 2차 파견미사 – 한마음수련원 통나무동
	25(화)	10시	교구청간담회 – 교구청 회의실
		11시	교구청 월례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27(목)	14시	사제평의회·참사회 – 교구청 회의실

교구 소식

제13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교육기간 3/12(토) ~ 10/16(주일)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수업료 17만 원 (밭분양비 포함)
신청마감 3/4(금)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1-386308 (재)천주교의정부교구

상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1) 봉사자 과정 (10주)

일시 3/19 ~ 6/4, 매주(토) 09시~18시

2) 국가자격취득 과정 (300시간)

일시 3/19 ~ 11/12, 매주(토) 09시~18시

장소 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 대회의실

참조 cafe.daum,net/sangjang2014 – 손님게시판

문의 031-874-6272 / 팩스 031-837-0144

[나무그늘] 비대면시기, 일상에서 행복찾기

비대면 시기, 혼자만의 또는 이웃과 함께 하는 일상 생활(모임, 요리, 산행, 반려동물과 함께 등)을 소개해주세요.

참신하고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samok@uca.or.kr 선교사목국

한마음 떼제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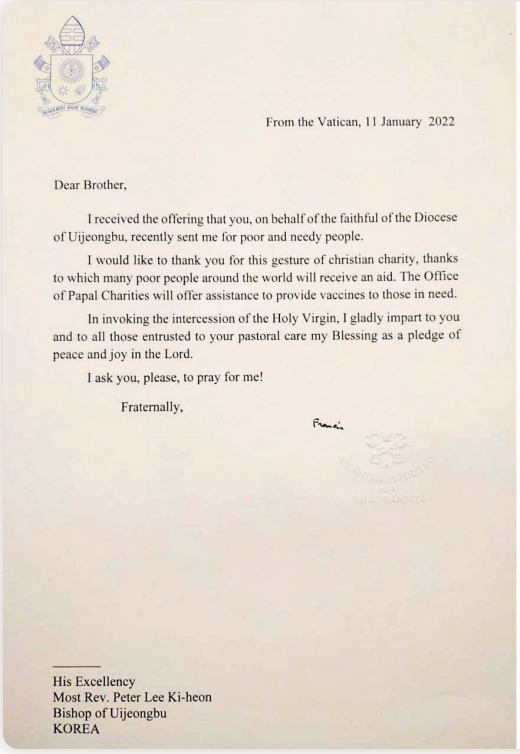
일시 2/5(토) 19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대강당

문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031-840-0018

천주교의정부교구

‘백신 나눔 운동’ 모금액 2차분 10만 달러 교황청 송금



From the Vatican, 11 January 2022

Dear Brother,

I received the offering that you, on behalf of the faithful of the Diocese of Uijeongbu, recently sent me for poor and needy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is gesture of christian charity, thanks to which many poor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receive an aid. The Office of Papal Charities will offer assistance to provide vaccines to those in need.

In invoking the intercession of the Holy Virgin, I gladly impart to you and to all those entrusted to your pastoral care my Blessing as a pledge of peace and joy in the Lord.

I ask you, please, to pray for me!

Fraternally,

His Excellency
Most Rev. Peter Lee Ki-heon
Bishop of Uijeongbu
KOREA

친애하는 형제에게,

주교님이 의정부교구 신자들을 대신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얼마 전 보내주신 봉헌금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의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실천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황 자선 사무국이 어려운 이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교님과 의정부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도록
축복을 전합니다.

주교님,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형제적 사랑으로, 프란치스코

의정부교구에서는 2022년 1월 5일에 ‘백신 나눔 운동’ 모금액 2차분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천만원)를 교황청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금 운동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교구는 재난긴급모금(FOJ)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가난한 이웃의 생계비 지원 및 가난한 나라의 백신지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참여 방법

휴대폰 소액 결제, 정기 후원, 카드 납부 가능 **ARS** 1877-1767
직접입금 우리은행 1005-802-013850 (재) 천주교의정부교구
문의 031-850-1472 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미사 · 피정 ▶▶

2022 청소년피정 모집 안내

본당별 단독 진행하는 하루 또는 1박2일 청소년피정,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31-840-0018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성경완독: 2/11(금)~19(토)
말씀피정: 2/24(목)~27(주일)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4박5일: 2/2(수)~27(주일)
이냐시오영신수련 4박5일: 2/23(수)~27(주일)
사순생태피정: 2/19(토)~20(주일)
내적여정에니어그램(기본): 2/4(금)~6(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신청/문의: 010-9099-2337
홈페이지 www.jesumaum.org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 · 자폐성 발달 장애인
경기도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가능, 송영서비스 가능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pjdoran
문의: 031-942-8000

탄현동 성당 관리장 모집

자격: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유아세례 우대)
운전면허 1종 보통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
면접: 개별통보 (제출서류 반환불가)
문의: 성당 사무실 031-922-3445

원당성당 에파타 성가대 반주자 모집

내용: 주일 11시 교중미사 성가대 반주자 모집
문의: 단장 김승수 베드로 010-5298-2942

이콘연구소 제20기 신입생 모집

분야: 이콘제작 및 연구(3년 과정)
대상: 65세 미만
실기시험: 2/19(토), 2/21(월) 10:30 중 택1
시험장소: 서울 중구 중림로 27 가톨릭출판사 신관6층 / 문의: 02-313-9973
개강: 3/2(수)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18세 이상, 학력제한없음)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2/9(수)까지, 우편 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022 복사단 리더십캠프

본당별 단독 진행하는 하루 또는 1박2일 리더십 캠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한마음청소년수련원 031-840-0018

(재)가톨릭평화방송 공개채용(신입/경력)

분야: PD(TV, 라디오), 기자, 기술, 경영, 마케팅
접수: 2/8(화) 까지
문의: 02-2270-2223,5
홈페이지 www.cpbc.co.kr 참조

파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란치스코의 집 입소자 모집

대상: 남성 지적 발달 장애인
외부활동, 프로그램, 직업재활 가능한 분
모집인원: 1명 / 모집기간: 충원시 까지
문의: 010-8918-3176

모니카쌤성가발성 1:1개인레슨 회원 모집

삶에 위안을 주는 성가 발성 개인레슨
강사: 이상희 모니카 / 장소: 서울 신촌 모니카음악홀 / 주1회 3개월 완성, 50%할인
초급 / 중급반 선택
문의: 010-5245-2848
모니카교회음악원 심준보 베드로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효소단식 영성피정

피정지도 : 김경진 베드로신부.(떼제미사)
교구강사: 이상기 가브리엘
영성상담: 이상인 달시시오
일시: 2/5~6, 2/12~13, 3/5~6, 3/12~13, 3/26~27(토~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회비: 효소10일분 포함 185,000원
문의: 010-3548-2433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3월 ~ 12월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문의: 031-810-9200 / www.karf.co.kr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꼬메스 심리상담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 가족, 부부, 갈등, 심리,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1회)
문의: 노경덕 신부 010-9916-5798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는 행복 선언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먼저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개의 행복 선언, 즉 진복팔단(마태 5,3-10) 이외에 네 가지 행복 선언이 더 발견됩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마태 11,6).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마태 13,16).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마태 16,17).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마태 24,46)

이들 행복 선언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 해당합니다. 이와 다르게 진복팔단은 보편적 성격의 행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대상을 특별한 어느 한 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이유(루카 1,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에 국한 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복팔단에 사용되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3.10절)뿐 아니라 미래 시제(4.5.6.7.8.9절, 특히 5.8절은 종말론적 미래)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신적 수동태(4.6.7.9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는 종말론적 상태와 관련됩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종말론적 행복에 관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4)

"시련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야고 1,12).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묵시 14,13).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묵시 22,14).

이승엽 미카엘 신부 | 선교사목국 신앙교육부